

김만두 비평*

-그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 중심으로-

최 옥 채

(전북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 상황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천과 연구를 겸비한 김만두를 선정하여 그의 인물비평을 실시하였다. 이 인물비평 방법은 문학비평에서 빌려와 김만두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김만두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에서 각기 5개와 6개 주제를 도출하고, 이들 주제를 결합해 다시 5개 주제(통합적 접근 강조,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의 아우름, 사회복지학의 선순환적 형성, 사회복지학의 패러다임 전환, 실천과 연구 조화의 미완)를 도출 해석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김만두의 사회복지실천이 사회복지제도를 넘나들며 정체됨, 1960-90년대 한국 사회복지의 한 단면이 드러남, 1960년대 아동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짐, 당시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사회복지학의 구성을 달리함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실천, 연구, 인물비평, 김만두

1. 문제제기

한국 사회복지학의 위상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단연코 연구자들에게서 찾고, 그들의 연구물로 가늠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의 발전 전개는 실천가와 연구자의 병렬적 노력에 의한다고 하겠으나, 결국에는 연구물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 전개 상황은 실증이 가능한 연구자들의 합당한 연구논문이나 저술 및 번역서를 바탕으로 드러날 것이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북대학교 지원 연구비로 이루어졌고, 2013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만두 비평, 실천과 연구 동심원 그리기: 그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고, 여기에 실천이 뒷받침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복지학은 초기 개론서를 통해 드러난 이후 여러 저술과 연구논문으로 발전 및 전개 되었다. 예컨대 1955년 첫 개론서와 1962년 및 1970년에 두 개론서가 '사회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후¹⁾, 1980년대 시작부터 '사회복지'로 바뀐 개론서(장인협, 1981; 김상규 외, 1982; 김영모 외 편, 1982; 김만두, 1982)²⁾, 사회복지학 관련 저술(김성순, 1981; 장인협, 1984; 최일섭, 1985; 문인숙, 1988)³⁾이 출간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1979년 한국사회사업학회가 『사회사업학회지』를 창간하면서 연구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⁴⁾ 한국 사회복지학의 형성 및 전개 과정은 곧 이의 발전이고, 이 발전은 사회복지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사회복지실천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 사회복지의 학문적 성과를 피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 중 역사학 연구에 서처럼 사회복지학 관련 특정 인물을 탐구하는 것도 한 가지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역사학에서 분별없이 아무 인물을 다루지 않듯 사회복지학이 발전해 나아가는 데 두드러지게 참여한 인물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물탐구 방법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문학의 인물비평을 활용한다면 이 작업을 한층 객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당한 인물과 방법을 찾아 적용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학의 일면을 규명하는 깊은 연구가 가능하고, 나아가 연구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연구자들에게 격려가 되거나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수많은 실천가와 연구자가 천 차만별로 활동했거나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초기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로서, 대학교 교수로 활동한 김만두를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과 전개에 일역을 감당한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상정하였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평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상세히 볼 그의 실천과 연구 활동이 문헌을 통해 출중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사회복지학이 형성된 후, 전개되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김만두의 연구 내용이나 범위가 그 이전의 연구와는 색다르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정은 그의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실천경험이 그의 연구를 뒷받침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김만두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에 중점을 두어 그의 실천 궤적을 살피고, 그의 연구 깊이를 짚으로써 당시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 및 전개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1) 김학복(1955)과 노창섭(1962)이 『사회사업개론』을, 김덕준 외(1970)가 『신사회사업개론』을 냈다.
- 2) 이보다 앞서 구자현(1972)과 김영모(1973)가 각자 『사회복지론』과 『한국사회복지론』을 냈는데, 앞 책은 1970년에 낸 『한국사회복지사』와 『사회개발론』을 합본한 것이고, 뒤 책은 저자가 머리말에 “그간 강의와 학술지, 그리고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였던 글을 모아서 아쉬운 교재를 만들기로 하였다.”며 한국 상황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송정부(1988)가 사회복지학을 고민하며 『사회복지학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집을 냈다.
- 3) 이들 저술은 노인복지나 아동복지와 같은 분야론과 집단사회사업이나 지역사회복지와 같은 사회복지실천 방법에 관한 것이고, 이보다 먼저 장인협(1968)이 케이스워크 관련 저술을 냈다.
- 4) 이 창간호에 실린 남세진(1979)의 사회사업학과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논문은 1980년대에 사회복지학 개론서를 구성하는 지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사회복지실천 방법과 같은 미시적 접근에서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거시적 접근이 부각되었음을 강조하였다.

2. 문헌고찰

1) 방법으로써 인물비평

비평은 다양한 모습으로 무질서하게 분산되어 있는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그것들에 관한 체계적이 고도 개별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해준다(권영민, 2009: 4). 즉 비평자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작품이 지닌 가능성을 열어준다.⁵⁾ 덧붙여 비평은 심판이 아니라 비평가와 작가의 열린 대화라는 점에서 상호보완성을 확보한다(김현, 1974). 그래서 문학작품 없이 비평이 있을 수 없고, 좋은 문학작품이 좋은 비평으로 순환하며 이끌어간다. 이와 같은 비평의 고유한 덕목에 근거해 실시하는 인물비평은 비평의 원리나 방법 따위를 충실히 지켜 대상이 되는 개인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평가 논의하는 것이다.⁶⁾ 그래서 연구자는 인물비평에서 시종“상대방을 극복하기 위한 필사적인 자신의 역량 발휘”(조연현, 1977: 17), “반성적 행위”(김현, 1993: 125), “자기-투시적, 자기-반성적”(권성우, 2001: 19)이라는 비평관(批評觀)에 버금가는 실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는 비평이 자칫 깊이 없이 대상 개인의 장점이나 단점, 우등이나 열등, 바름이나 그름 따위를 까발림으로써 비평의 진정한 가치나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런 면에서 인물비평은 연구자의 시각으로 사회복지학을 살펴보는 모종의 내재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사회복지학의 현실을 한층 깊게 조망할 수 있고, 아울러 더욱 높은 교육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학에서의 인물비평은 사회복지학에서의 한 연구방법으로써 적용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학에서 인물비평은 특정 단계가 없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에서의 인물비평과는 달리 문학비평에서 강조하는 바에 근거하여 질적연구에서 강조하는 합당한 자료와 이의 분석 과정을 충실히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즉 연구자가 자신과 현실을 성찰 및 직시하는 가운데 신중히 물색한 인물이 펼쳐놓은 사회복지학 관련 자료를 망라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분석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학이 실천학문이라는 측면에서 대상 인물의 개인사와 함께 실천 관련 이력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⁷⁾ 한편 인물비평이 질적연구 수준에서 멈추지 않아야 함은 비평 대상 개인의 심층적인 면도 함께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심리분석까지도 수행해야 한다.⁸⁾ 이와 같은 연

5) 이와 같은 비평의 중심 개념은 Frye가 “비평은 그 자체로는 말을 하지 않는 인간의 생산적인 힘을 언어로써 모방한 것이다.”(임철규 역, 2000: 61-62)고 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6) 이는 비평이 “학문과 예술, 논문과 창작, 인식과 표현, 논리와 감성의 접경지대에 놓인 독특한 글쓰기의 양식”(권성우, 2001: 193), “대상과의 집요하고도 섬세한 대결이나 글쓰는 주체의 정교한 독자적 사유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입장에 기반하여 찍어지는 글쓰기”(권성우, 2001: 205)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7) 이를 위해 생애사달력(Life History Calendar)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사건들 간 관계를 연결하면서 인지심리학적 기제(시각적 효과, 표식사건 활용, 면접의 대화적 유연성)에 따라 특정 사건을 시간적 맥락에 위치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기억을 자연스럽게 되살릴 수 있으며, 기억의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마경희·이순미, 2012: 275-276).

구를 통해 비록 한 인물이지만 그 인물이 관련하는 당시 사회복지학의 실상을 개인의 심리적 성향과 사회의 환경적 특성을 엮어 한층 구체적으로 들추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복지에서의 실천과 연구

국어사전에서 실천을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함”이라고 할 때 이는 여러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실천은 임의로 분별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는 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실천에는 목적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 따위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실천은 “현실 인식을 현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최하림, 1993: 286)을 강조한다. 요컨대 실천을 이론의 부산물쯤으로 흘려보지 않고, 실천이 형식보다는 내용을, 사변적인 것보다는 실체를, 추상적 관념보다는 구체적 사실에 가치를 둔다. 이는 책상머리에서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바일 터인데⁹⁾, 곧 실천에서의 양과 질을 구별 및 평가하는 것이다. 즉 실천의 넓이와 깊이를 따져 물음으로써 실천이 지니는 가치를 더욱 공고히 견지할 수 있고, 그래서 Lukács도 언급한 것처럼 경험이 보편화되어 바른 세계관을 이룸으로써 그 세계관은 인생의 모순과 진실을 바로 보게 하는 기초가 된다(이선영, 1995: 163).

특별히 사회복지실천에서 실천은 클라이언트와 그의 환경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EI-Bassel, 2008: 396). 아울러 사회복지실천은 관계 속에서 과정 자체의 엄밀함과 적절함을 유지하며 이루어진다. 덧붙여 실천은 경험으로 축적된다는 점에서 경험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사회복지실천 형성의 경험은 사례를 온전히 경험한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다.¹⁰⁾ 이렇게 실천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얕은 개인이 체험한 것에 언제나 국한되어 있다.”(홍정선, 1993: 272), “한 개인이 그의 개인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그의 체험과 경험 때문이다.”(김현, 1977: 132)는 점에 기인하고, 결국 실천에 어떤 정답이 있어 이를 밝혀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 터득해 나아가는 것이다.¹¹⁾ 따라서 사회복지사로서나 연구자로서 ‘자기관리’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학이 실천의 산물이라고 할 때 실천의 질이 좌우할 것이고, 실천은 부단한 노력으로 이론 가치와 기술을 증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회복지에서 실천은 같은 원인이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인과율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익히 들어온 사회복지실천이 과학성뿐만 아니라 예술성도 함께 지닌다는 점이 뒷받

8)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김만두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기 전까지 그의 태생, 학력, 부모관계, 동료관계를 파악하여 심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개인의 경험이 그가 태어난 곳, 속한 계층, 받은 교육 따위의 복합적 어울림에 의하기 때문이다.

9) 이는 앉아 하는 것보다 발로 뛰며 하는 일에 더 가치를 둔다는 의미인데, 문학평론가 김윤식(1991: 336)이 “코뮬레의 백센 교수가 여영택의 시를 번역하기 위해 여영택이 있는 울릉도까지 오가며 다 부진 모습을 보였다.”는 점으로부터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10) 물론 여기에서 “현상을 유발하는 본질적 관계를 꿰뚫어보는 이성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주의”(이선영, 1995: 155)에 머무르지 않는다.

11) 이런 측면에서 “각자가 각자인 것은 각인의 경험에서만 그러하다.”(林有正 譯, 1970, 김윤식, 2012: 437 재인용)고 한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실상을, 예컨대 인간문화재의 대열에 든 장인들의 끊임없는 실천이 뒷받침한다.

침한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복지실천은 클라이언트를 주요 참여자 삼아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주변인이 함께 협력해 이루어지는 계획된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 사회복지실천을 포함한 실천은 실천의 토대가 되는 가치나 원리를 충분히 익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사전에서 연구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그 이치나 진리를 밝힘”이라 일컫는 점에서 연구의 수준을 분별케 한다. 연구물이라고 다 연구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좋은 연구라 함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연구자의 혼이 깃든 과업이라야 할 것이고, 특히 사회복지학에서의 연구다운 연구는 실천으로 발현되어야 하고, 다시 이론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연구와 실천이, 실천과 연구가 병진하는 과업이라야 한다. 결국 실천과 연구는 서로 상호보완적이어야 할 것인데,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합당한 수준에서 연구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대학교나 연구기관의 연구자는 실천현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따져보아야 하겠다. 실천과 연구가 이렇진대 과연 김만두, 그는 사회복지사로서 때로는 교수로서 이 두 길을 지나며 그 소임을 어떻게 수행했을까?

3) 선행연구

사회복지학에서 특정 개인 실천가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방법을 적용해 이론 연구논문은 일천하다. 이런 상황은 외국에서도 같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짐체 볼 수 없는 사회복지 관련 실천가나 연구자의 전기물이 나와 사회복지(학)의 발전상을 전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Jane Adams나 Mary Richimond와 같은 인물을 다룬 저술(Hovde, 1989; Agnew, 2004)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운노 코스케(海野幸徳)나 나마에 타카유키(生江孝之)와 같은 사회복지학 연구자에 관한 저술(中壇昌美, 1999; 一番ヶ康子, 1999)이 있다.¹²⁾ 이 저술들은 관련 인물의 생애뿐 아니라 학문적 맥락에서 그들의 활동 및 연구가 소개됨으로써 사회복지학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문헌에서는 연구자의 이름을 붙여 ‘오카무라(岡村)이론’, ‘교하시(孝橋)이론’, ‘타케우치(竹内)이론’이 소개되고 있는데(최옥채·黒木保博, 2011: 232), 연구방법을 정연히 갖추어 연구논문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김영모(2003)가 유일하게 자신의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를 소개하는 책을 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사회복지(학) 관련 실천가나 연구자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한층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주제 중심의 기존 연구에서 다룰 수 없는 더욱 세밀하고 미묘한 것을 드러내는 것도 한 가지 유익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12) 이외에도 요시다 큐이치(吉田久一)가 주축이 되어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초기 주요 11명 연구자들의 저술에 생애와 해설을 덧붙인 『小河滋次郎集』, 『田子一民・山崎巖集』, 『海野幸徳集』과 같은 일본의 사회복지고전총서를 발행하였다(吉田久一 外 編集, 1980).

3. 연구방법

1)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수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실시하였다. 즉 김만두가 실천가로서 이론 실천경험과 연구자로서 일군 연구문헌에 중점을 두었다. 대체로 김만두의 실천경험은 면접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2010-12년에 김만두와 세 차례 실시한 면접은 생애사달력을 염두하며 이루어졌다. 부가적으로 기고문과 같은 문헌이 활용되었다. 아울러 그의 연구는 전적으로 문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¹³⁾

한편 김만두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그의 개인 삶과 실천가로서의 활동 상황을 반영하였다. 실제로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실시하였다.

첫째, 한편으로는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녹음 및 메모)를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만두가 만들어낸 문헌을 발간 연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체계화하였다. 예컨대 김만두가 교수직에 취임하기 전 기고한 사회복지 관련 글과 번역서를 시간에 따라 정리했고, 특히 번역서나 기타 저술의 판별 발행연도를 확인해 초판 발행 시점을 고려하였다.

둘째, 실천경험과 연구문헌 양쪽에서 체계화한 전체 문헌을 읽은 후, 주요 주제를 도출했다. 이 작업을 위해 자료들 간 비교를 치밀하게 했고, 반복해 주제를 수정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을 때는 주변 연구자나 본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했다. 예컨대 김만두의 실천과 연구 관련 주제 명칭은 수차례 바뀌면서 정밀하게 드러났고, 김만두로부터 지도를 받은 그의 제자와 논의했다.

셋째, 양쪽에서 도출한 주제를 결합해 새로운 주제를 도출했고, 이들 주제를 비평적 분위기에서 해석했다. 이를 비평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연구자의 객관적 입장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작업이었다. 특히 “비평가의 임무가 관습적 사유구조의 각질을 파괴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데 있다.”(권성우, 2001: 105)고 한 것처럼 비평 관련 도서를 읽으며 예민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들 주제별 해석을 하나로 묶어 통합기술을 실시하였다. 이 통합기술은 이 논문의 전체 내용의 구성을 거듭 바로 잡는 데 유의했고, 실제로 이 통합기술을 실시하는 중 몇 차례 전체 내용을 보완하였다.¹⁴⁾

2) 엄정한 연구를 위한 노력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및 해석하는 과정을 엄하고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13) 면접은 김만두와 그의 제자 3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특히 연구논문이나 기고한 글은 한 문헌 안에서 또 다른 문헌을 찾기도 하였다. 예컨대 “한국복지서비스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에서 『학생생활연구』(1994, 강남대 학생생활연구소 간)에 실린 “신한국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전개방향”을 찾았다.

14) 이 논문에서는 원고분량의 제한으로 이 통합기술을 생략했다.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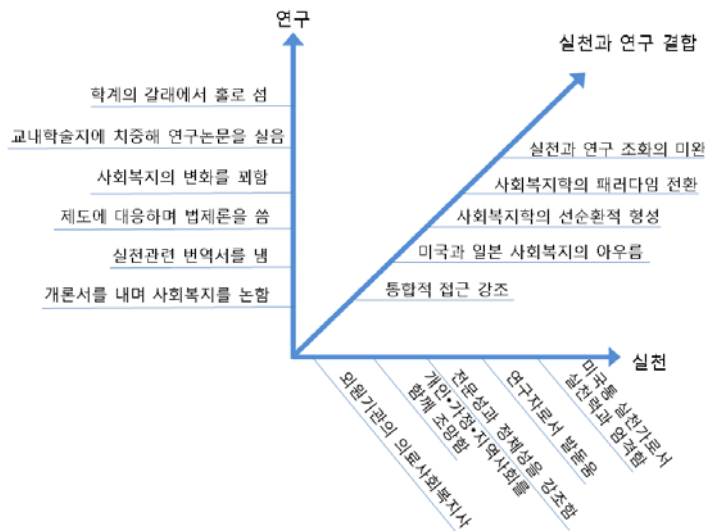
첫째, “문학비평이 문학양심”(권영민, 2009: 416)이라고 하듯 인물비평은 곧 대상 인물이나 연구자의 양심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보며 치우치지 않고 관련 자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 김만두의 전반적인 생활사를 살펴보기 위해 연보를 정리했다. 즉 생애사달력을 만들었는데, 이는 약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이력을 한층 치밀하게 정리하고, 이를 분석하는 데 유익하였다.

셋째, 자료분석에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의 분석을 병행하며 진행하였다.¹⁵⁾ 이 같은 객관적이고 냉철한 작업은 사회복지학 연구자로서 의무이자 권리임을 염두하며 진행하였다.

4. 김만두가 강조하는 사회복지학

김만두가 펼친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연구를 바탕으로 이론 그의 학문을 그가 치르고 일군 사회복지 실천경험과 연구문헌에 근거하여 분석했다. 그의 실천과 연구로부터 각기 5가지와 6가지 주제를 도출 및 해석했고, 이 양자를 결합 추출한 5가지 주제를 해석했다. 먼저 이들 주제를 <그림 1>과 같이 도해로 요약했다.



<그림 1> 실천과 연구 결합 도해¹⁶⁾

15) 이 같은 노력은 문학비평에서 “자기를 기만하지 않으려고 자신에 대한 정신분석을 병행하는 자신과의 싸움을 함으로써 작품을 터무니없이 훼손하거나 추켜세우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정현중, 1993: 220)고 한 점에 견줄 수 있다.

16) 이는 Prigogine이 주장한 소산구조(疏散構造, dissipative structure)처럼 체제 안의 단자는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자와 밀접하게 삼투하면서 서로의 에너지를 교환하고, 이런 물질 교환을 통해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문광훈, 2006: 67), 아울러 “수직은 수평

1) 김만두의 사회복지실천

김만두는 1954년에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입학해 1958년에 졸업하고, 한노병원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첫발을 내딛었다.¹⁷⁾ 그가 이 병원의 케이스워커로 활동하던 중 캐나다유니테리언봉사회에 한노병원의 노르웨이 출신 Godfred Rekkebo가 협력하면서 이 봉사회로 옮겨 근무하였다. 이 같은 활동을 시작으로 그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와 교수직에 이르기 전까지 펼친 현장활동을 <표 1>에 요약하였다. 아울러 그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살이에서 이끌어낸 5가지 주제를 해석했다.

<표 1> 김만두의 주요 사회복지실천 내역

기간 사항	1958-1963	1964-1973	1976-1978
근무지역	서울	목포/인천	서울
근무기관	한노병원 소셜워커 중앙의료원사회사업반	목포아동결핵병원 사회사업 반/목포사회복지관/인천/영 등포사회복지관	시흥사회복지관 강남사회복지학교/이화 여대/송전대(현 숭실대)
업무내용	의료사회복지	가족복지/지역사회복지	가족복지/지역사회복지
문헌활동	CCF에서 영어편지 번역 아동/사회복지시설/사회 복지사윤리 관련글 기고	1964년에도 기고함 1972년 『케이스워 관계론』 번역	1977년 『가족치료의 이 론과 기술』번역
거주상황	미혼/관사생활	결혼/자녀(1남 1녀)	대학교 강사 활동
특이사항	거리청소년대부로 불림 최초 의료사회복지사 CCF의 『동광』주간	1972년 『케이스워커 관계 의 기본원리』번역	1974~76년 일본 유학

(1) 외원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

김만두는 이화여대 사회사업과 출신 1명과 한국 최초 의료사회복지사로 활동했고, 당시 병원에 사회복지사의 사무실이 없어 다방으로 출근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의료서비스 상황에서 그의 활동은 전위적이었다.¹⁸⁾ 소위 케이스워크라는 방법을 적용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환자는 물

성에 의해 안정을 찾고, 수평은 수직성에 의해 중심을 잡는다.”(문광훈, 2006: 401-402)는 효과를 확보한다.

17) 김만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사회복지사를 꿈꾸었고, 이에 교회의 목사가 추천하는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에 지원했다.

18) 김만두의 이와 같은 활동은 당시 캐나다유니테리언봉사회의 사업에 협력자로 참여했던 노한협회(Norwegian Korean Association) Godfred Rekkebo 대표의 지도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Rekkebo는 노르웨이의 루터교에서 간호사와 사회사업 교육을 받은 전문가였다(성민선, 2007: 392).

론 이들 가족의 심리적 및 물질적 안정을 꾀함으로써 기존 방법에 비하면 획기적이고 창조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활동은 서구로부터 들어온 것이고, 외원기관의 병원운영 방침에 의한 것이었고, 처음 접하는 것이라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불러일으켰을 터이다. 사회복지사로서 이 처우 역시 급여를 미국 달러로 받음으로써 다른 직업군의 급여에 비해 꽤 좋은 편이었다. 이런 활동이 한국 사회복지실천 역사에서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야 할 것임에도 그는 자신의 저술 약력란에 밝히지 않았다.¹⁹⁾ 한편 김만두는 억압적이고 독선적인 주장과 논리를 거부하고, 편급하지 않아 거짓 태도를 경멸하는 성격을 지녔고, 아울러 나름의 절제와 원칙을 지키는 데 나태하지 않았다.²⁰⁾ 이렇게 김만두가 전위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Rekkebo와 같은 전문가의 지도감독과 그의 천성이 함께 치레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를 함께 조망함

김만두는 1964년 캐나다유니테리언봉사회가 사업의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선정한 목포로 내려갔다. 그는 당초 목포아동결핵병원 사회사업반에 근무하던 중 지역사회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봉사회가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에 사업장을 마련했다. 바로 이 사업장을 목포사회복지관으로 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이 쓰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은 물론 가족에 관심을 쏟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방송과 신문을 통해 적극 알렸고, 지역사회자원을 개발 및 동원하는 데 솔선하였다. 요컨대 목포시의 주요 인물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들의 가정, 이의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했다.²¹⁾ 특히 이와 같은 그의 실천경험은 이후 그의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동시대의 연구자들에 비해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예컨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다원화와 관련해 한국 사회의 다계층화, 다연령화, 고도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강조했다(김만두, 1994a), 아울러 한국 가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가족의 일반적 니드 충족을 위한 지원모델, 가족의 특수한 니드 충족을 위한 지원, 가족중심 지원의 전문적 개입 3가지 모델을 제시했다(김만두, 1997).

19)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이 『한국사회복지』 (제4집)를 '松江 金萬斗 教授 隱退記念 特輯號'라는 부제로 발행했는데,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 김만두의 이런 모습은 그가 『동광』에 연재한 '아동의 상담실'이라는 기고란에서, 예컨대 거짓말하는 아동과 관련하여 "무엇이든지 양육자에게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관계를 조성합시다." (김만두, 1963b: 61)라고 강조한 점, 1951년에 만들어진 미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혼란과 역경 속에서 사회사업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검토하자" (김만두, 1963c: 23)는 글에서 엿볼 수 있다.

21) 인터뷰에서 김만두는 자신이 인천사회복지관으로 발령이 나 목포를 떠날 때 목포역 광장에 자신과 관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송했다고 회고하였다.

22) 이 무렵 활동했던 주요 연구자로 이화여대 문인숙, 서울대 장인협, 중앙대 김영모, 성심여대(현 가톨릭대) 김용일 등을 들 수 있다.

(3) 전문성과 정체성을 강조함

김만두는 사회복지사로서 탄탄한 지식과 철학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사회복지의 가치와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탄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합당한 지식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자칫 실천은 허세나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질이었을 것이다. 천성으로 지켰을까, 김만두는 사회복지사로서 유감없이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의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의 변화에까지 관심을 쏟아 활동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그의 성향에 의해 더욱 가속화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정신의학과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예컨대 “자기의 적의를 전이시킨 것”,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속의 인물에 주의하여”(김만두, 1963a: 60),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시켜 필요에 대처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뜻있고 의미 깊은 일”(김만두, 1963d: 51)이라고 강조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960년대 초반 외원기관의 원조에 의한 시설중심 사회사업에서 벗어나, 예컨대 아동 자신뿐 아니라 아동의 가정, 전체 사회, 아동과 접촉하는 인간관계 따위에 중점을 두어 더욱 역동적으로 개입하는 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이런 상황이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과학,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야 하며(김만두, 1965: 16)²³⁾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4) 연구자로서 발돋움

김만두는 1962-3년에 기독교아동복지회(CCF)가 발행한 계간지 『동광』 주간으로 활동하였다.²⁴⁾ 글쓰기가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이라면 그의 계간지 주간 경험은 향후 연구자의 길로 가는 훈련이나 시험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 주간으로서뿐 아니라 그가 투고한 글의 내용에서 사회복지사의 진지함이 드러나고 있고, 이는 곧 연구자가 되기 위한 발돋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주간을 역임한 후에도 『동광』의 ‘아동상담실’을 계속 운영했고, ‘기아의 주변’(김만두, 1964a)이나 ‘시설아동의 증가를 막는 길’(김만두, 1964b)을 논단에 발표했다. 특히 『동광』에 관여한 것은 그가 대학생 시절부터 CCF에서 한국과 미국에 오가는 편지를 번역하면서였다. 이런 경험이 이후 영어 원서를 접하고, 번역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추측케 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소중한 경력이 왜 그의 공식 연보에서 빠졌을까?²⁵⁾

(5) 미국통 실천가로서 실천력과 엄격함

김만두가 한국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미국통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은 앞에 언급한 바처럼 그가 일찍이 대학교 졸업 전부터 CCF에서 결연 서신을 번역하는 일에 가담했고, 이후 한노병원과 캐나

23) 이와 같은 그의 면모는 이후 사회복지실천 관련 도서가 일천한 상황에서 외국 책을 번역한 작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4) ‘어린이의 빛[童光]’이라는 뜻을 지닌 『동광』은 1953년에 결성된 CCF한국연합회가 195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전문 계간지로 발행하였다(어린이재단, 2008: 30-31).

25) 이 주간 경력은 1962-3년 전후에 발행된 『동광』을 낱낱이 찾아 확인했다.

다유니테리언봉사사회에 취업하여 서울과 목포에서 사회복지실천 활동을 펼쳤고, 나아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사회복지실천 관련 저술을 번역한 점으로부터 드러나고 있다.²⁶⁾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김만두는 인천과 서울로 옮겨 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며 유학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에서 들어온 사회복지실천 방법이나 제반 이론 및 기술과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현장 간 괴리 따위를 경험하면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던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이나 정체성 때문에 유학을 더욱 갈망했을 수도 있었을 터이다. 이런 상황은 당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질게 받은 반면, 학계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이 혼합 적용되는 가운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연구자들의 활동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타전문직과 부딪히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지녀야 할 전문성과 정체성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원래 김만두는 캐나다에 유학하려 했으나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약 3년간 일본의 것을 배우며 그가 한국에서 익힌 사회복지실천을 검증받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2) 김만두의 사회복지연구

김만두가 연구해낸 결과는 특이하게 번역서가 많고, 저술로는 ‘사회복지개론’과 ‘사회복지법제론’ 두 종류이고, 연구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을 포함해 19편에 이르고 있다.²⁷⁾ 이들 문헌을 먼저 <표 2>와 <표 3>에 요약하고, 이와 같은 그의 연구에 근거하여 6가지 주제를 도출 해석하였다.

<표 2> 김만두의 저술 내역

제목	연도	출판사	원저자	특이 사항
위기개입론 ²⁸⁾	1985	홍익재	Donna C. Aguilera Janice M. Messick	번역서(1978년 출판)
현대사회복지총론	1982	홍익재		1984년 2판 1986년 3판 ²⁹⁾ 1988년 4판 1990년 5판
사회복지와 법	1985	홍익재		
케이스워크: 심리사회요법 ³⁰⁾	1985	홍익재	Florence Hollis	번역서(1963년 출판)
사회사업 면접의 기술	1986	홍익재	Alfred Kadushin	번역서(1983년 출판) 문인숙과 공역
케이스워크 관계론 ³¹⁾	1986	홍익재	Felix P. Biestek	번역서(1957년 출판)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술 ³²⁾	1986	홍익재	Virginia Satir	번역서(1967년 출판)
복지권론	1989	홍익재	Carl Wellman	번역서

26) 실제로 김만두는 외원기관에서 활동한 것 이외에도 1972년에 Biestek의 『케이스워크 관계의 기본원리』를 번역했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도 특별히 일본에 경도되어 연구물을 내지는 않았다.

27) 이외에도 ‘역할이론’이나 ‘위기이론’ 따위를 Francis J. Turner가 1974년에 편저한 Social Work Treatment에서 발췌 번역해 학부졸업생 논문집에 게재했는데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社會福祉の専門教育 ³³⁾	1990	光生館	一番ヶ瀬康子 小川利夫 大橋謙策	일본교수 편저서
사회복지법제론	1992	홍익재		2006년까지 냄
사례관리실천론	1993	홍익재	David P. Moxley	번역서
현대사회복지개론	1993	홍익재		한혜경과 공저

<표 3> 김만두의 연구논문 내역

제목	연도	출처	특이 사항
통합사회사업의 기초적 연구	1978	석사학위논문	同志社大學
일반시스템이론에 기초한 사회사업방법론 통합에 관한 연구	1978	교내 『논문집』	제6집
전문사회사업에 있어서 계획적인 변화와 개입 방법에 관한 연구	1979	교내 『논문집』	제7집
청소년가출문제와 그 예방모델에 관한 연구	1982	교내 『논문집』	제10집
청소년비행에 관한 전문사회사업적 치료방법의 연구: 심리사회적 접근	1984	교내 『논문집』	제13집
헌법과 사회복지: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1985	교내 사회사업학과 ³⁴⁾	제9집
Bowen의 가족체계치료이론에 관한 고찰	1987	교내 사회사업학과	제10집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 연구 서설	1988	교내 사회사업학과	제11집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소고	1989	교내 사회사업학과	제12집
한국에 있어서 다원적 복지서비스공급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1994	교내 한국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	제1집
신한국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전개방향	1994	교내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창간호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제도와 정책	1994	한국영양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주제발표
한국복지서비스법의 문제점과 개선책	1994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주제발표
재가복지에 있어서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1996	교내 사회과학연구소	제2집

- 28) 이미 1980년에 강남사회복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것을 홍익재가 판수를 밝히지 않고 낸 것이다.
- 29) 5판의 판권란에는 '3판'이라는 표시가 빠졌는데, 이는 오류이고, 이것이 3판으로 되어야 옳다. 아울러 초판과 5판의 내용에서 개정된 것이 일절 없으므로 '판'이 아닌 '쇄'로 보아야 한다.
- 30) 이미 1979년에 강남사회복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것을 홍익재가 판수를 밝히지 않고 낸 것이다.
- 31) 이 번역서는 1972년에 한국사회복지연구소에서 『케이스워크 관계의 기본원리』라는 이름으로 낸 것을 1982년에 많은 오류를 바로 잡아 강남대 출판부에서 낸 것이다. 이후 홍익재가 1984년과 1986년에 강남대 출판부 판을 그대로 냈음에도 판권란에는 각기 2판과 3판이라고 하였다(김만두 역, 1986: 5-14).
- 32) 이미 1977년에 한국사회복지연구소에서 첫 출판을 했고, 홍익재가 1986년과 1988년에 초판과 재판을 냈는데, 1977년 판 역자의 말을 그대로 수록한 채 초판 및 재판을 낸다는 번역자의 글이 없다.
- 33) 『한국사회복지』(제4집)의 김만두 약력에는 출판연도가 1987년으로 되어 있으나 원서를 보면 1990년에 출판사가 시리즈복지교육 6권으로 출판했고, 김만두는 이 책의 제7장 각국의 소셜워크 교육의 역사와 현황에서 '한국의 소셜워크 교육'을 맡았다.

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가족복지에 있어서 가족사회사업과 가족치료 간의 차이성에 관한 논의	1997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가족사회복지학』	창간호
한국가족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적 대응	1997	교내 『한국사회복지』	제3집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Normalization원리에 대한 고찰	1997	교내 사회과학대학편 『논문집』	제29집
생태학이론에 기초한 사회복지사업실천에 관한 연구	1998	교내 『논문집』 (사회과학복지대학)	제32집
사회복지 구조의 기초적 이해	1998	교내 『학생생활연구』	제5호

(1) 개론서를 내며 사회복지를 논함

김만두는 1982년 첫 저술로 『현대사회복지총론』을 그의 졸업생이 운영하는 흥익재에서 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당시 다른 연구자가 정의하는 사회복지 개념과 사회복지학을 구성하는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먼저 김만두(1982: 11-18)는 사회복지 개념을 대상자에 따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 정리했다. 즉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사회적 약자나 낙오자에 한정할 반면,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전체 국민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면서도 김만두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에 더욱 중점을 두어 욕구를 지닌 개인의 생활충족과 부조정을 겪는 사회환경에서의 결함을 예방 및 치료함에 치중하였다. 아울러 사회복지와 전문사회사업과 사회보장의 차이점을 밝혔다. 이 같은 김만두의 입장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행한 실천경험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장인협(1981: 1)과 학부와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김영모의 주장(김영모 외, 1982: i)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학을 구성하는 내용에서 김만두(1982)는 사회복지실천 방법(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 조직활동), 사회복지 분야(생활보호, 아동복지, 장애자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 자원론)로 구성했고, 여기에 사회복지의 전개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진화이론, 기능주의이론, 갈등이론)을 다루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예컨대 장인협(1981)이 사회복지 방법론으로 개별지도론, 집단지도론, 지역사회조직론, 사회복지 행정, 사회사업 조사, 사회복지 정책과 계획을 망라한 것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사회복지실천에 한정하려는 김만두의 시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⁴⁾

34) 1976년에 『사회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중앙신학 학도호국단 사회사업학회가 교수와 졸업생의 논문을 실어 발행했고, 1978년부터 강남사회복지학교 학도호국단 사회사업학회로 발행처가 바뀌었으며, 1979년부터는 제호가 『사회사업논문집』으로 바뀌어 1995년(제18집)까지 발행되었고, 1994년부터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가 『한국사회복지』 제1집을 냈다.

35) 한편 김영모(1973)는 사회복지 방법(전통적 방법, 전문적 방법, 정책적 방법), 사회복지 분야(아동복지, 가족복지, 의료사회사업, 정신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교정사업, 노동복지)로 구성했고, 여기에 사회복지 이념을 부가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상황을 사회복지 실제와 과제(사회개발, 사회복지행정, 새마을운동, 시민참여)에서 소개했다.

(2) 실천 관련 도서에 주목하며 번역서를 냄

〈표 2〉에 나타난 바처럼 김만두는 일본의 편저서에 협력자로 참여한 것을 빼면 총 11권 중 7권을 번역서로 냈고, 모두 미국의 것이었다. 이는 그가 외원기관에 취업 활동하면서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김만두가 이들 번역서를 작업하며 일본으로부터 영어원서의 일역서를 들여와 한글로 재번역하지 않고 직접 원서를 번역했다는 점이다.³⁶⁾

김만두는 이미 대학교의 교수가 되기 전에 번역서를 냈다. 예컨대 1972년과 1977년에 각기 『케이스워크 관계론』과 『가족치료 이론과 기술』을 번역 출판했다. 번역 기간을 고려하면 이들 원서가 그의 실천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김만두가 서울에서 의료사회사업가로나 목포와 인천에서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활동할 때 개별사회사업가의 역할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고, 나아가 아동을 위한 활동에서 가족치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케이스워크 관련 저술은 처음으로 장인협(1968)이 냈으나, 김만두는 케이스워크에서 강조하는 관계론의 본질에 중점을 둔 『케이스워크 관계론』을 번역하였다. 아울러 그는 이 책의 저자가 인간의 참된 행복을 밝히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나아가 종교와 과학의 지혜를 통합한 점에 적극 공감했음을 밝혔고(김만두 역, 1986: 11-12), 이후 『케이스워크』를 번역하면서 “인간과 상황의 전체 관련성”(김만두 역, 1985b: 17)을 강조했다. 한편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술』을 번역하면서 한국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족으로 통해 보아야 하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복지욕구집단인 가족을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분석 및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김만두 역, 1986: 9-10). 이뿐만 아니라 『사회사업 면접의 기술』(문인숙·김만두 역, 1986), 『위기개입론: 이론과 방법』(김만두 역, 1985b), 『사례관리실천론』(김만두 편역, 1993) 등은 철저히 실천을 염두에 두었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그의 몸부림은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관한 『복지권론』(김만두 역, 1989)을 번역한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는 이미 다음에서 보는 법제론 관련 저술을 1985년에 내며 생소했던 사회복지법제 영역을 공부했고, 특히 이 저술을 이해하며 겪은 어려움을 “복지권에 대한 반대이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복지권의 정당성을 논증해야 한다면 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김만두 역, 1989: 4)고 하였다. 이처럼 그가 실천에서 경험하며 필요한 저술을 신속히 번역 소개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선두적 역할을 해냈다.

(3) 제도에 대응하며 법제론을 씀

김만두가 ‘사회복지법제론’에까지 손을 댄 것은 ‘사전식 줄속주의’ 폐해를 생각하며 상고한 것이고, 나아가 요긴한 실천을 풍부하게 갖추어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가 『사회복지와 법』을 내며 “클라이언트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체 과정을

36) 그는 이미 외원기관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영어를 구사하고 영어문헌을 접하는 데 친숙했고, 특히 번역서를 낼 때마다 역자서문에서 번역의 오류를 걱정했고, 실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정 및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와 그의 열정은 일본 유학에서도 수많은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케 했다고 볼 수 있다.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인간다운 생존권과 자기실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를 도외시 하고 가능할 것인가?”(김만두, 1985: 6)라고 강조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⁷⁾ 이 같은 김만두의 입장은 학과장으로서 졸업생 논문집의 격려사에 “인간주의적 사회시스템이 구축되고 정착되어야 한다.”(강남사회복지학교 학도호국단 사회사업학회, 1981)고 피력한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편 그는 실천 중심 연구자로서 좀체 다루기 힘든 사회복지법 관련 저술을 낸 것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가 사회복지실천에 능숙하게 임해온 터라 당연히 사회복지제도를 다룰 수밖에 없고, 특히 사회복지제도를 바라보는 눈이 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에도 눈치를 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 연구자들 간 불편한 관계 탓이었으리라. 이런 현상은 김만두 본인에게는 매우 아쉬운 점이지만, 어쨌든 이는 연구자 김만두를 그릇 알게 할 수도 있는 그의 학문적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개론서를 다시 쓰며 사회복지의 변화를 꾀함

사회복지의 변화를 꾀한 것은 1982년의 첫 개론서와 1993년의 마지막 개론서 간 구조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만두는 새 개론서에서 사회복지의 역사와 구성체계를 한층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사회복지실천방법을 더욱 다양화하여 소개했다. 예컨대 영국과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를 소개했고, 사회복지 대상과 운영실시체계를 상세히 다루었다. 나아가 첫 개론서에서는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 조직활동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1993년에는 직접적 개입방법론, 지원적 개입방법론, 간접적 개입방법론으로 구분해 총 6개 방법을 주장하였다.³⁸⁾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 역시 처음에는 7개 영역에서 마지막에는 13개 영역으로 늘려 정리했다. 이는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에 따른 것일 터인데, 의료보장, 정신장애, 재가복지, 모자복지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전에는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만두·한혜경, 1993: 509)며 ‘의료복지’에서 ‘보건의료복지’로 발전시켜 다루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제론’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꾀하였고, 나아가 번역서에서는 범위의 확대와 정치함을 보였다. 예컨대 ‘사회복지법제론’의 변화는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것이지만 『사회복지와 법』에서는 사회복지관계법이 클라이언트의 생존과 자기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성과 같이 좁게 보았다면(김만두, 1985), 『사회복지법제론』에서는 대상자의 경제적 급부와 개별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관련법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구조의 체계화에 중점을 두었다(김만두, 1991). 사회복지의 변화는 사회상을 반영할 터인데, 실제로 김만두는 김영삼 정부(1993-1998)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의 분권화와 수익자부담방식의 도입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도래했다고 내다보았다(김만두, 1994b: 23-24).

37) 이 책의 서문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괴로운 도전을 착수하고, 5, 6년간 이 분야의 연구자료를 공부하고 법의 원점에 있는 인간다운 생존권과 성장, 발달권이란 시각에서 사회복지 관계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코저 시도해 보았다.”고 하였다.

38) 즉 직접적 개입방법론에는 임상사회사업과 지역사회사업을, 지원적 개입방법론에는 사례관리방법과 사회복지조사, 간접적 개입방법론에는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정책 및 계획으로 구분 배치하였다(김만두·한혜경, 1993).

한편 번역서에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김만두는 영어 원서를 번역하는 실력이 크게 늘어 번역에 더욱 매진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실천의 관심 영역이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감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그가 초기 번역한 저술은 『위기개입론』, 『사회사업 면접의 기술』, 『케이스 워』와 같이 지극히 개별사회사업방법에 치중했다면, 이후에는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술』을 번역함으로써 가족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고, 다시 『사례관리실천론』번역은 그의 관심이 지역사회에까지 확대되어 갔음을 짐작케 한다. 물론 이는 그 자신만의 관심에 의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실천 현상이 그렇게 유독한 점도 이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역시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의 시각을 넓혀 통합적으로 보려는 그의 성향이나 의지 탓이었으리라.

(5) 교내 학술지에 치중해 연구논문을 실음

김만두는 <표 3>에 정리한 것처럼 석사학위논문을 제외한 총 18편 연구논문 중 3편을 빼 15편을 강남대에서 발행하는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교외 연구논문 3편도 2편은 학술대회 발표논문이고, 연구논문으로는 1편에 불과하다. 교내 학술지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면, 대학교와 연구소와 학과가 발행한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그의 연구논문 4편이 실린 『사회사업(논집)』은 학과가 발행한 것으로 학부 졸업생과 함께 실은 것이다. 특히 교내 학술지의 발행체제가 약간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하고 변화를 거듭했는데, 이는 강남대학교가 급격히 성장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1998년까지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여타 논문의 수준을 고려하면 김만두의 연구논문도 충분히 게재될 수 있을 법 한데 단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 이는 그가 투고한 것이 탈락되었을 수 있겠으나 그가 지레 투고를 경계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사정은 뒤에 보는 것처럼 김만두가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주류에 서지 않았던 점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6) 학계의 갈래에서 홀로 섬

한국사회사업학회와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학술지 발행과 관련하여 양측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김만두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켰다. 실제로 기존 한국사회사업학회가 1985년에 창립된 한국사회복지학회와 1987년에 통합되기까지 두 학회 측의 적지 않은 서먹함이 있었다.³⁹⁾ 이는 1986년 11월부터 양 학회 측이 통합을 위해 합의하고, 1987년 1년간 양 학회의 임원진이 겸하는 쌍두체제로 운영된 점을 통해 엿볼 수 있다(한국사회복지학회, 1988). 이런 상황에서 김만두는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지에 단 한 편의 논문도 게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더러 학력 콤플렉스가 작용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콤플렉스는 본인과 상대의 작용으로 가능할 터인데, 예컨대 본인이 교외 학술지에 연구실적을 내지 못한 점, 상대로서 남세진(1979)이 연구에서 굳이 강남대를 4년제 정규대학

39) 한국사회사업학회는 1985년에 한국사회복지학회로 개칭하고 기존 학술지 『사회사업학회지』를 『사회복지학회지』로 개명하여 1986년까지 8호를 발행했다(실제 발행연도는 그 다음 해임). 역시 1985년에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창립되어 1986년과 1987년에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 제1집과 제2집을 발행하였다. 두 학회는 1987년에 통합되어 1988년에 『한국사회복지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간의 8호와 2집을 합쳐 통권11호를 발행했다.

교에서 제외할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김만두는 “독창성은 반드시 콤플렉스이다.”(Lecourt, 1974: 김현, 1991: 113 재인용)고 한 것처럼 자신의 실천경험을 더욱 앞세웠을 터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외국인이 하면 괜찮고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우선 의심부터 하고 보는 병통”(최원식, 1997: 394-395)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3) 김만두의 실천과 연구 결합

여기에서는 김만두의 실천과 연구로부터 얻어 해석한 내용을 결합해 다시 5가지 주제를 만들어 해석하였다. 이 같은 해석을 통해 ‘김만두 사회복지학’이라고 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학문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

(1) 통합적 접근 강조

김만두는 사회복지실천과 번역을 포함한 저술을 통해 사회복지학이 사회 흐름에 따라야 함을 한 차원 높은 경지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며 통합적 접근을 주창하였다. 즉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개별사회사업방법과 집단사회사업방법과 지역사회사업방법의 통합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노정한 것으로 가치기반의 엄격한 원칙주의자로서 내세운 것이다.⁴⁰⁾ 이와 같은 그의 실천 및 학문적 변화는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하는 중에 더욱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김만두는 일본으로 가기 전에 이미 일본어를 터득한 상태에서 웬만큼 미국의 사회복지실천 관련 저술을 접했고, 나아가 외원기관에서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학문을 한층 정밀하게 다듬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그는 유학기간에 수많은 사회과학서적을 접하며 그 나름대로 사회복지학의 구조를 구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컨대 그가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통합해 보려는 시각은 『사례관리실천론』을 편역하며 “지역사회에 기초한 시원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방법론에 매달리고 있다.”(김만두 편역, 1993: 6)고 지적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같은 그의 통합적 시각은 이미 그의 석사학위논문 제목에서 엿볼 수 있고,⁴¹⁾ 그가 사회복지학을 조망하는 전체 기틀이 되었다.

(2)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의 아우름

김만두가 사회복지실천에 근거하여 연구자로서 균형점에 다다른 것은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를 교묘히 아우르게 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사회복지학 연구자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룬 것으로 양수 겸장을 친 셈이다. 그렇다고 그저 미국과 일본의 책을 베껴 소개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그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대하며 합당한 새로운 방안을 갈망했기 때문

40) 그의 한 제자 교수는 김만두의 엄격한 학문 태도는 그가 학부 수업에서 학생들의 치밀한 준비와 진지한 발표 및 보고서 작성을 강조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41) 김만두의 석사학위논문 제목은 “통합사회사업의 기초적 연구”인데, 그가 학위를 받은 일본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이나 재직하던 강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이 논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에 대중 형식을 갖추어 넘어가려는 구태의연함은 아니었다. 김만두가 미국의 것을 차용했다는 점은, 예컨대 사회복지의 개념을 “사회변동에 의한 사회적 제반 문제를 반영하여 개발 전략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교육, 주택, 산업복지 등의 예방과 치료, 리해비리테이션을 포함한다.”(김만두, 1982: 16)고 표현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만두가 일본에서 사회복지학의 안목을 키운 것은 사회복지제도 측면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를 한국으로 이식해오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던 현실과 김만두가 『사회복지와 법』이나 『사회복지법제론』을 저술하며 일본의 문헌을 적지 않게 거론한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 그의 학문적 균형은 미국의 실천이나 일본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모방한 것이 아니고, 게다가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고 한국의 현장을 품고 그 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적 노력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3) 실천과 연구에 의한 사회복지학의 선순환적 형성

김만두는 사회복지의 실천경험을 기초로 사회복지학을 연구하고, 이 연구문헌을 실천에 적용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가 내세우는 사회복지학이 선순환하며 형성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실천은 연구가 되고, 연구는 실천이 되도록 했다. 이는 연구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연구도 그가 외원기관에 몸담고 실천가로서 자세를 연구에서도 실천하는 것처럼 이룬 것일 터이다. 당시 사회상에서, 사회복지 외원기관을 접하면서 김만두는 피할 수 없는 열등감과 자존감 속에 터득한 바가 이후 줄곧 한국 사회복지학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사회복지 개념이나 사회복지학 내용에서 다른 연구자들이 강조한 것과 비교한 것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예컨대 김만두의 개론서에 드러난 바와 같이 그의 주장은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통합적 측면에서 보려했고, 바로 이 점이 다른 연구자들의 것에 비해 독특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4) 사회복지학의 패러다임 전환

김만두는 1982년과 1993년에 낸 사회복지학 개론서에서 소개하는 사회복지학의 구성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그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1985년에 사회사업학회가 사회복지학회로 바뀌었고, 1998년에는 사회복지학회가 패러다임 전환을 드러내놓고 고심하였다.⁴²⁾ 그는 사회복지학의 구성을 더욱 치밀하게 이루었는데, 한 가지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을 강조한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회복지의 실천을 넘어 체도에까지 신경을 쓰며 그 중요성을 주창한 점이다. 아울러 사회복지학의 전체 내용을 확장시켰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한결 치밀하게 정리했다. 실제로 김만두는 연구논문에서 “인권이란 전제하에서 사회복지의 구조적 기본이념인 생존권 관념을 그 역사적 형성과정 중심으로 고찰해야 한다.”(김만두, 1988: 39)고 했고, 나아가 이와 같은 성향은 『복지권론』을 번역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그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복지실천 못지않게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와 법』을 냈고, 이를 개정한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사회복지의 변화를 드러내보였다. 예컨대 사회복지법에서의 전문사

42) 한국사회복지학회는 1998년에 ‘한국사회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사업의 실천을 강조하고, 생존권의 구조를 밝혔다(김만두, 1991). 이런 그의 노력은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제도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데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5) 실천과 연구 조화의 미완

김만두가 이룬 한국 사회복지학은 여러 모로 호평을 받아야 함에도 지적해야 할 한계도 없지 않다. 특히 실천과 연구를 겸했다는 면은 연구자로서 아무나 따라 할 수 없는 강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마치 쌍발기가 많은 강점을 지님에도 약점을 안고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김만두가 주창한 사회복지의 실천과 연구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양자의 조화로운 결합이 실천과 연구에 널리 확산되지 못함으로써 미완의 조화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의 요인을 크게 두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측면은 그가 한국 사회복지학계에서 홀로 섬으로써 나타난 것이고, 다른 한 측면은 그의 연구 자체를 잇는 후계 연구자가 없어 드러난 약점에 따른 한계였으리라. 아울러 이 한계는 김만두가 졸업하고 몸담았던 강남대학교가 지닌 또 다른 한계에 근원한 것은 아닐까. 요컨대 한국 사회복지학계와 폭넓게 교류하지 못하고, 연구중심 제자를 따로 기르지 못함으로써 그가 시도했던 실천과 연구의 조화가 완성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여기에는 그의 조금은 데테한, 그래서 의절할 수도 있는 성격적 성향이 한몫을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5. 논의와 제언

김만두는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며 자신의 경험에 충실했고, 그래서 그가 연구한 것이 그의 삶 전체에서 우러나온 것 같다. 이는 진정한 연구자로서 행한 실천과 교감으로 가능했을 터이다. 특히 사회복지실천 현상을 통합적으로 보려는 그의 초기 업적은 “등단작은 한 작가의 문학적 방향성을 내장하고 있다.”(하응백, 1999: 400)고 하듯 이후 그가 은퇴할 때까지 ‘김만두 사회복지학’의 지주가 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김만두는 사회복지학에서의 실천과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연구자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후학 입장에서 그의 한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만두가 보여준 사회복지학을 마무리하며 몇 가지를 논의 및 제언하였다.

첫째, 김만두는 당초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좁게 봤고, 이의 구성에서도 사회복지실천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이 실천은 사회복지제도를 넘나들며 정체되었다. 이렇게 김만두가 강조한 사회복지학은 그가 교수직에 취임한 이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교수직 초기에 내세운 사회복지학 내용은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한층 확장되었고, 이의 구조도 더욱 치밀하게 짜여졌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사회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그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채운 노련함, 즉 실천과 연구가 각기 수평과 수직으로 맞서 이룬 결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김만두의 비평을 통해, 특히 1960-1980년대 한국 사회복지의 한 단면을 확인 및 추정할 수 있다. 예컨대 당시 한국 사회복지는, 1) 외원기관이 사회복지실천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2) 사회복지실

친 쪽에서 보완점을 찾아 대응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가 정비되었으며, 3) 미국의 사회복지실천이 대세를 이루며 일본의 사회복지제도가 다소 결합되어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고, 4) 학계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향에 따라 갈등을 일으켰다는 특성을 지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특성은 최근 사회복지실천 현상이 확장되고, 사회복지사가 ‘팔방미인’격으로 업무를 다종다양하게 수행하면서 사회복지실천이 상대적으로 축소 및 알아지고 있는 면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처지는 Huxley가 강조한 바처럼(김영범 역, 2005: 392)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교육에서 이전에 중시했던 경험보다는 원리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분위기도 한몫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김만두 비평을 통해 외원기관과 함께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1960년대 사회복지실천이 아동에 중점을 두어 병원을 포함해 지역사회에서 두루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아동에 중점을 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법 중에서 가장 먼저 「아동복지법」(1961)을 제정하여 요보호아동의 예방에 힘써야 했던 시대상에서 짐작할 수 있다(구자현, 1984: 211). 여기에 아동을 위한 사업이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이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 필요했고, 나아가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는 물론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활용해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사업의 전문성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하겠다.

넷째, 1980년대 초에 나온 개론서에 한정해 볼 때 이의 내용에 나타난 바처럼 각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사회복지학의 구성을 달리하였다. 예컨대 김영모는 사회학 전공자답게 후자의 두 사람보다는 거시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 쪽으로 기울었고, 장인협은 영문학을 전공한 가운데 미국의 사회복지실천 방법론에 치중했으며, 김만두는 미국의 사회복지실천을 중심에 두었다. 이와 같은 성향이 이후 각 연구자가 소속하는 대학교에서 강조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특화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유추도 가능하겠다.

다섯째, 김만두의 연구문헌과 관련한 서지(書誌) 측면에서 미비하거나 오류가 적지 않음이 드러났다. 예컨대 저술의 판권란에 기재된 판별 표기가쇄본과 혼동되기도 하고, 연구논문의 출처가 부정확했다. 특히 김만두의 약력을 소개한 은퇴기념 학술지에 『장애인복지론』을 저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 문헌을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오류나 문헌 보관의 부실함은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이 연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과 출판사의 무분별한 출판행위가 지적을 받아야 한다.

여섯째, 김만두가 주장하는 사회복지학이 그가 연구자로서 활동했던 20여 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피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김만두가 제시한 사회복지학을 비평하는 데 그의 학문, 특히 사회복지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기능하는 것은 당시 사회복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한층 세세하게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작업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판별 원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의 개론서 『현대사회복지총론』이 1982년부터 1990년까지 5권이 나왔다고 판권란에 표시되었음에도 그 판별 원본을 입수할 수 없고, 판권란의 판수 표시가 올바르게 된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역시 앞

에 언급한 것처럼 연구자 개인이나 도서관이 문헌을 보관하는 데 더욱 충실해야 하고, 아울러 책을 내는 출판사의 세심한 주의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일곱째, 후속연구에서 김만두가 제시한 개론서의 내용을 더욱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그가 제시한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직접개입, 지원적 개입, 간접적 개입으로 구분한 점의 근원과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방법과 비교해 김만두 것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 아울러 특정 현상이 고립되기보다 연관되어 설명되어야 하듯 김만두의 연구문헌을 다른 연구자의 것과 견줄 수 있는 연구가 절실하다. 요컨대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한 부분에 불과하여 당시 상황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적지 않았는데, 이 추측의 확인을 위해 또 다른 인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마당에 한국 사회복지학의 위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 편, 1999, 『21세기 한국사회복지전망』, 서울: 홍익재.
- 강남사회복지학교 학도호국단 사회사업학회, 1981, 『사회사업』, 제5집.
- 구자현, 1972, 『사회복지론』,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_____, 1984, 『한국사회복지사』 (재판), 서울: 홍익재.
- 권성우, 2001, 『비평의 희망』, 서울: 문학동네.
- 권영민, 2009, 『문학사와 문학비평』, 경기 파주: 문학동네.
- 김덕준·김영모·이명홍·지윤·강만춘, 1970, 『신사회사업개론』,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김만두, 1963a, “아동의 상담실(1)”, 『동광』, 7(2): 59-62.
- _____, 1963b, “아동의 상담실(2)”, 『동광』, 7(3): 60-64.
- _____, 1963c, “사회사업가의 윤리적 규정(미국편 소개)”, 『동광』, 7(1): 23-28.
- _____, 1963d, “보모훈련을 통한 아동복지”, 『동광』, 7(1): 49-51.
- _____, 1964a, “기아의 주변”, 『동광』, 8(2): 27-33.
- _____, 1964b, “시설아동의 증가를 막는 길”, 『동광』, 8(3호): 14-21.
- _____, 1965, “자립에의 자세: 외원의존의 탈피”, 『동광』, 9(1): 13-19.
- _____, 1982, 『현대사회복지총론』, 서울: 홍익재.
- _____, 1985, 『사회복지와 법』, 서울: 홍익재.
- _____, 1986,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술』, 서울: 홍익재.
- _____, 1988,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 연구 서설”, 『사회사업논집』(강남사회복지학교 사회사업학과), 11: 9-40.
- _____, 199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_____, 1994a, “한국에 있어서 다원적 복지서비스공급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사회복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 9-30.
- _____, 1994b, “한국복지서비스법의 문제점과 개선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3-24.
- _____, 1997, “한국가족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적 대응”, 『한국사회복지』 (강남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3: 5-30.

- 김만두 역, 1985, 『케이스워크』, *Florence Hollis*, 1964, *Casework: A Psychosocial Therapy*, 서울: 홍익재.
 _____, 1986, 『케이스워크 관계론』, Felix P. Biestek, S. J., 1957, *The Casework Relationship*, 서울: 홍익재.
 _____, 1989, 『복지권론』, Carl Wellman, *Welfare Rights*, 1982, 서울: 홍익재.
- 김만두 편역, 1993, 『사례관리실천론』, David P. Moxley, 1989, *The Practice of Case Management*, 서울: 홍익재.
- 김만두 · 한혜경, 1993,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재.
- 김상규 · 윤옥 · 전재일, 1982, 『사회복지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성순, 1981, 『노인복지론』, 서울: 이우출판사.
- 김영모, 1973,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법문사.
 _____, 2003, 『대학교수 40년』, 서울: 인간과 복지.
- 김영모 · 남세진 · 신섭중 편, 1982, 『현대사회복지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영범 역, 2005, 『인간사회에서의 생존경쟁』, Pyotr Alekseyevich Kropotkin, 2002, *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 373-399, 서울: 르네상스.
- 김윤식, 1991, 『김윤식 평론문학선』, 서울: 문학사상사.
 _____, 2012, 『내가 읽고 만난 일본』, 서울: 그린비.
- 김학목, 1955, 『사회사업개론』, 서울: 한국사회사업연합회.
- 김 현, 1974, 『사회와 윤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_____, 1977, 『한국 문학의 위상』, 서울: 문학과지성사.
 _____, 1991, 『행복의 시학/제강의 꿈』 (김현 문학 전집 9), 서울: 문학과지성사.
 _____, 1993, 『자료집』 (김현 문학 전집 16), 서울: 문학과지성사.
- 남세진, 1979, “한국 사회사업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 51-71.
- 노창섭, 1962, 『사회사업개론』, 서울: 새글사.
- 마경희 · 이순미, 2012, “라이프코스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생애사 달력(Life History Calendar)”, 『사회과학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6(2): 271-292.
- 문광훈, 2006, 『김우창의 인문주의』, 경기 과주: 한길사.
- 문인숙, 1988, 『집단사회사업방법론: 이론과 실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문인숙 · 김만두 역, 1986, 『사회사업 면접의 기법』, Alfred Kadushin, 1972, *The Social Work Interview*, 서울: 홍익재.
- 성민선, 2007, “캐나다유니테리언봉사회에 의한 한국 최초의 학교사회사업 고찰”, 『사회복지연구』, 35: 389-408.
- 송정부, 1988, 『사회복지학 연구』, 서울: 법지사.
- 송정부 역, 1980, 『사회복지학』, 岡村重夫(오카무라 시게오), 1968, *社會福祉學*, 서울: 학문사.
- 어린이재단, 2008, 『한국사회복지 60년 그리고 어린이재단 60년』.
- 이선영, 1995, 『리얼리즘을 넘어서: 한국문학 연구의 새 지평』, 서울: 민음사.
- 임철규 역, 2000, 『비평의 해부』, Northrop Frye, 2000, *Anatomy of Criticism four essays*,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 장인협, 1968, 『케이스 워크: 이론과 실제』, 서울: 남산당.
 _____, 1981, 『사회복지개론』, 서울: 한국사회개발연구원.

- _____, 1984, 『아동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현중, 1993, “겨울산 외 4편”, 김현, 『자료집』 (김현 문학 전집 16), 서울: 문학과 지성사, 211-221.
- 조연현, 1977, 『조연현 문학전집 4』, 서울: 어문각.
- 최옥채 · 黒木保博(구로키 야스히로), 2011, 『일본 사회복지학 삼각측량』, 경기 과주: 양서원.
- 최원식, 1997, 『생산적인 대화를 위하여』, 서울: 창작과비평사.
- 최일섭, 1985,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 최하림, 1993, “김현, 그의‘있음’과 사랑”, 김현, 『자료집』 (김현 문학 전집 16), 서울: 문학과지성사, 283-288.
- 하응백, 1999, “신화와 한의 소설 미학”, 한승원, 『목선』, 서울: 문이당, 399-413.
- 한국사회복지학회, 1988, “叢報”, 『한국사회복지학』, 11: 184-187.
- 홍정선, 1993, “김현의 술과 비평”, 김현, 『자료집』 (김현 문학 전집 16), 서울: 문학과지성사, 267-274.
- Agnew, Elizabeth, N., 2004, *From Charity to Social Work: Mary E. Richmond and the Creation of an American Profession*,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El-Bassel, Nabila, 2008, “Practice intervention and research”, 396-398,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20th Ed.), by Mizrahi, Terry Larry, and Davis, 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vde, Jane, 1989, *Jane Addams*, New York: Facts On File.
- Lecourt, Dominique, 1974, *Bachelard, le hour et la nuit*, Paris: Grasset.
- 一番ヶ 康子(이치만카세 세스코), 1999, 『生江孝之』, 東京: 大空社.
- 林有正(하야시 아리마사) 譯, 1970, 『フィレンツェだよりルー・サロメへの書簡』, 東京: 筑摩書房.
- 中壇昌美(나카가키 마사요시), 1999, 『海野幸徳』, 東京: 大空社.
- 吉田久一(오시다 큐이치) 外 編集, 1980, 『社會福祉古典叢書』, 東京: 鳳書院.

A Critique on Kim, Mandoo -Based on His Social Work Practice and Literatures-

Choi, Okchai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grasp a slice of development of Korean Social Welfare. For this study, a character critique has been conducted on Kim, Man-doo who had been superbly equipped by social work practice and study as well. The accomplished critique came from literature criticism is based on his social work practice and his literatures.

Five and six themes have been elicited each from Kim's social work practice and his literatures. Through the association of those two kinds of themes has been finally reasoned out another five themes; emphasis on integrated approach, encompassment of social welfare from America and Japan, virtuous cycling formation of Social Welfare, paradigm shift of Social Welfare, and regrettable unfinished harmony of practice and study.

In regards to the results, some subjects are discussed as follows; Kim's social work practice had been refined cross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a slice of Korean social welfare in 1960-90s was exposed, children-based social work practice in 1960s had been practiced unitedly, and Korean Social Welfare in 1960-80s had been structu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cholars'inclination.

Key words: practice, study, character critique, Kim, Man-doo

[논문 접수일 : 13. 09. 30, 심사일 : 13. 10. 09, 게재 확정일 : 13. 11. 06]